

광주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대도시 최고수준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

중학생 6.1%·고교생 5.2%나

광주교육청, 보충학습 대폭 확대

전남 중학생 미달 비율 증가세

고교 폭력 피해 학생도 늘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현황,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수, 학생들의 체력 향상도 결과 등.’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2015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 보고서’는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실태를 비롯해, 교육 현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학교 교육 과정 성취도가 20% 미만에 머물면서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정도로 학력이 낮은 학생들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 ‘학습 부진아’ 비율, 왜? = 교육부의 분석보고서는 광주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인 중학생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인 광주 중학교 비율은 6.1%.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6.3%)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특히 ▲2013년 4.1% ▲2014년 5.8% ▲2015년 6.1% 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고등학교도 비슷해 ▲2013년 3.3% ▲2014년 4.3% ▲2015년 5.2% 등 증가세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올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 보충지도’를 내세워 전년도(2억6000만원)에 견줘 345%를 증액한 1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교표’ 교육 정책의 성과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올 11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 시·도별 특성학교 취업률

	평균	광주	전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47.6	39.5	69.0	50.5	40.5	55.4	50.2	53.4	31.2	47.1	43.6	45.7	47.3	49.5	29.6	49.8	57.9	20.0
2014년	45.7	37.7	62.2	48.6	41.9	50.6	49.0	47.8	30.5	41.3	40.4	38.3	50.9	52.2	34.6	47.7	55.2	27.3
2013년	40.0	38.8	38.5	44.4	46.3	38.4	45.5	37.6	24.9	30.6	36.2	25.9	41.0	40.0	35.5	41.5	48.2	22.2

■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남도 ▲2013년 4.1% ▲2014년 4.9% ▲2015년 5.1% 등 기초학력 미달 중학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 ‘2018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2%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질 지 관심사다.

다만, 지난해 전남지역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6.2%로 전년도(6.7%)에 견줘 다소 감소했다.

◇전남 고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늘어, 왜?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도 엇볼 수 있다.

광주의 경우 학교당 연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2013년 1.2명 ▲2014년 1.1명 ▲2015년 1.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다만, 대구를 제외하면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전남은 전년도(0.4명)와 변화가 없었다.

중학교도 감소세다. 광주지역 피해 학생들은 ▲2013년 12.8명 ▲2014년 7.2명 ▲2015년 6.6명 등으로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전남도 ▲2013년 4.6명 ▲2014년 3.2명 ▲2015년 2.8명 등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약간 다르다. 전남에서는 ▲2013년 4.1명 ▲2014년 2.6명 ▲2015년 3.6명 등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지난해 오히려 증가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2013년 3.4명 ▲2014년 3.3명 ▲2015년 1.6명 등으로 줄었다.

◇체력은 좋아져 = 광주·전남 초·중·고 학생들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를 통한 체력 향상도도 가늠할 수 있다.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체 1~5 등급 중 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4, 5등급 학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광주·전남의 4~5등급 평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체 평균 3.3 3.9 3.8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평균	3.3	3.9	3.8
광주	4.1	5.8	6.1
전남	4.1	4.9	5.1
서울	3.8	4.8	4.4
부산	2.7	3.0	2.6
대구	2.4	2.4	1.8
인천	2.0	2.3	3.2
대전	3.2	3.7	3.1
울산	1.4	2.0	1.2
세종	3.6	3.1	3.1
경기	3.9	3.9	3.7
강원	4.2	5.2	4.6
충북	0.8	1.4	2.1
충남	2.6	3.1	3.0
전북	5.7	6.7	6.3
경북	1.9	3.0	2.7
경남	3.1	3.8	4.0
제주	2.8	3.2	4.4

■ 학교당 연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

	전국 평균			광주			전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5년	0.5	5.4	2.5	1.0	6.6	1.6	0.4	2.8	3.6
2014년	0.4	5.8	2.2	1.1	7.2	3.3	0.4	3.2	2.6
2013년	0.5	9.1	3.4	1.2	12.8	3.4	0.3	4.6	4.1

군 비율이 ▲2013년 3.9%(전남 6.2%) ▲2014년 2.6%(" 5.0%) ▲2015년 2.3%(" 3.9%)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 학생들 중에서도 4~5등급 비율은 광주·전남 모두 감소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립대 교수들 “전남대, 총장 직선제 빨리 결정해라”

전국거점국립대교수연합 성명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이하 거국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선출 방식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대 안팎에서는 오는 16일 교수회의 평의회 때 지방면 총장이 참석, 최

종 결정 사항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국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전남대 총장은 교육부 논지를 살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전남대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와 합의로 발의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학적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

공학부 교수)가 지난 4월 교수 총투표를 거쳐 제안한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적 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하라는 것이다.

거국련은 “전남대 총장 직선제안은 기존 직선제보다 훨씬 폭넓게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됐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거국련은 또 “교육부는 전향적 자세로 전남대가 향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천하는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 절차를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을 임명토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직선제 총장을 인정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가 지난 1월 개소식을 갖고 케냐 케냐타대학원에 문을 연 ‘케냐타대-조선대 나이로비 세종학당’.

조선대,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생 연수기관 선정

외국인 유학생 맞춤 지원

국제화 선도 대학 발돋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과 연구 과목을 개설하고 내국인 재학생과 1대 1로 매칭,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는다. 유학생 봉사단을 꾸리고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마련하는가 하면, 국가별 유학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조선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들로, 외국인 학생들이 겪을법한 사회·문화적 어려움을 덜어줘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중이다.

미래의 지한파(知韓派), 친한파(親韓派)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순한 한국어 도우미 서비스 뿐 아니라 국인들이 전혀 불편없이 광주 생활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선대는 더 나아가 케냐에 조선대·케냐타대학 나이로비 세종학당을 개설, 한국 문화 전파에도 공을 쏟고 있다.

조선대가 최근 국립국제교육원의 ‘2016~2017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한국어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대학이 갖춘 글로벌 경쟁력과 앞선 외국인 서비스가 한몫을 했다는 게 대학 안팎의 평가다.

11개 선정 기관중 호남권 사립대학으로는 조선대가 유일하다. 조선대는 오는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조선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제화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17~18일 진로·진학 박람회

광주·전남 교육청과 전남대가 진행하는 ‘2016 광주·전남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가 17일부터 이틀간 전남대에서 열린다. ‘진단-탐색-설계-실행’이라는 틀에 따라 심리검사, 전공 상담(84개 학과)·체험과 전시 관람, 진학 상담·특강과 학부모 대상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보성을 비롯, 순천(27일)·나주(30일)·목포(7월 1일) 등에서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계열별 학과와 취업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된다.

오늘 혁신도시기관 채용설명회

한전을 비롯,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은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내쁘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